



# 가공 식품의 포장 표시에 대해

## Processed-food Packaging Labeling

池田 徹 / 아지노모토(주) 생상기술개발 센터 포장·포재기술부 전임부장

### 1. 서두

포장의 3대 기능 중 '표시 전달 기능'이 가공 식품 포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가공 식품에 특유한 '표시'의 요건으로써 ① 법대응 표시 ② 환경·재활용 대응표시 ③ 표시의 일반적인 디자인 등의 3가지에 대해 우리 회사의 방식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 1. 법 대응 표시

가공 식품의 표시에 관련된 법령은 많지만 주요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계량법,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방지법(경표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업계 자주 기준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제제의 명칭에 관한 운용기준', '식용 식물유의 영양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적합성도 요구된다.

이 법령들이 정한 기준은 상호 중시되는 부분

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기준들 모두에 적합하고, 약사법이나 그 외 법령에 규정된 '금지표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품질 보증 규정에 정해진 회사 공통 기준의 하나로써 '상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에게 최소 수수단위가 되는 '개장', 제품의 유통 단계에서의 수수·수송 목적으로 봉합된 포장 단위인 '외장' 및 외장에 이어서 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시행된 포장 단위인 '중장' (중간 상자)의 3단계 포장에 대해 각각 법령에 적합한 표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특히 개장 표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장 포장재의 발주 수속을 명시하고 확인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2중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수속 및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체크들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써 '상품 표시 체크 시트'가 제정되어 있으며 표시해야 하는 내용(예를 들어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존방법, 제조자명 및 그 주소 등의 일괄

표시, 영양 성분 표시, 그 외 필요한 경우의 표시), 표시 글씨체, 금지 표시에 저촉되지 않는 확인 등 순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들과 체크 시트는 사내의 정보 네트에 게재되고 담당자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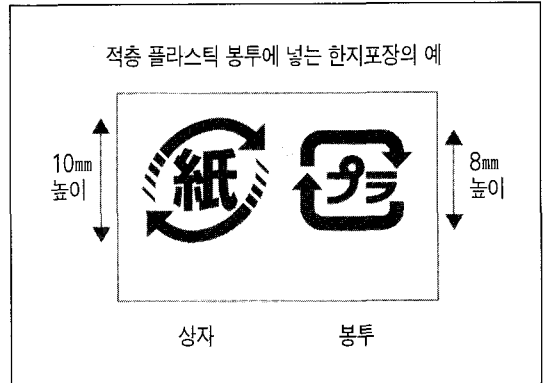
## 2. 환경·재활용을 고려한 표시

용기 포장 재활용법의 완전 시행에 따라 유리 병, PET병, 금속 캔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포장, 종이재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우리 회사에서도 '상품표시기준'의 하부 기준으로써 '용기포장에 관한 식별표시·재질표시기준'을 2001년 말에 제정했다.

이 기준의 특징은 법정 기준으로써 분별 배출을 위한 식별표시와 함께 회사 자주 기준으로써 재질 정보나 원료 재활용을 상징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재질표시'를 의무화했다는 점에 있다.

식별표시는 정해진 식별 마크(그림 1)를 용기 포장에 원칙적으로 포장부위(상자, 봉투, 병, 뚜껑 등)별 소정의 형식 표시로하고, 그 사이즈도

(그림 2) 복합재의 식별마크 예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는 보기 쉬운 사이즈를 선택 했다(그림 2).

재질 표시는 포장 부위 및 약기 표시로 구성한다. 포장 부위는 덮개, 컵, 병, 보틀, 캡, 라벨, 씰, 봉투, 상자 등의 포장부위를 거의 전면에 걸쳐 알기 쉬운 표시로 통일해 기재하는 것으로 했다.

약기 표시에는 JIS K 6899 및 ISO 1043에 근거해서 플라스틱의 종류나 금속·종이 등이 명시된다. 복합재의 경우는 구성 중량 순서에서 적어도 2번째까지는 표시하고 가장 무거운 소재에는 언더라인을 표기하도록 정해졌다.

또한 종이 등의 재생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림 1) 식별 마크 예





것을 명시할 경우 골판지, 유리병, 알루미늄재와 같은 재생 원료의 이용으로 보급한 소재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재생 재료 사용율이 50% 이상인 재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P(재생지)'로 표기할 수 있으며 비목재지도 표기할 수 있다.

그 외 표시로써 '재활용은 각 지자체가 정한 방법을 준수하세요'라는 표시를 원칙 표기하도록 했다.

'쓰레기', '버리다' 등 재활용에 반하는 표기는 할 수 없고 '환경에 친숙하다' 등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ISO 14000 시리즈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부담 절감의 구체적 사실과 맞춰서 표시하는 것 외에는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캡을 따고 재활용에 협력해 주세요', '빈 캔은 재활용에 협력해 주세요' 등의 재활용 개발 표현은 상품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붙여도 좋다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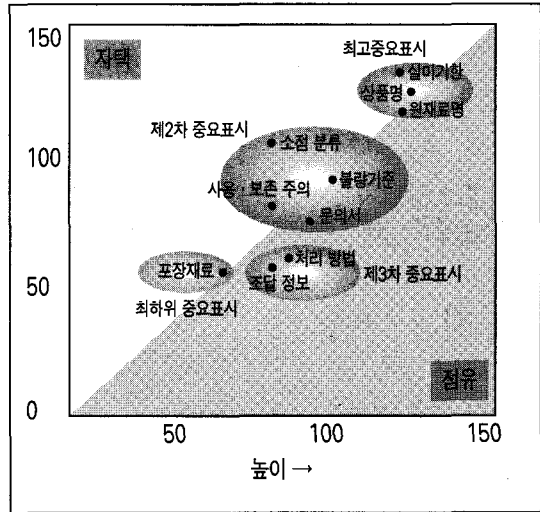
### 3. 표시의 일반적 디자인

일반적 디자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의 정도를 의식하는 것 없이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식품 용기 포장에서는 ① 사용하기 쉽고, ② 알기 쉽고, ③ 위험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이 중요하다. 가공 식품의 표시에서는 '알기 쉽다'가 주체가 되는데 ① 명료하고 읽기 쉽다, ② 단순하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2가지 사항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들면서 활동을 소개한다.

[그림 3] '혼다시' 뒷면표시의 중요도



#### 3-1. 명료하고 읽기 쉬운 표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고객이 읽기 쉬운 표시를 바라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글자를 읽기 쉽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자체의 크기에 의한 것이지만 용기 포장의 제한된 면적에 표시할 수 있는 글자수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표시를 읽기 쉽게 나열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고충은 끊이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의 의견을 실제로 조사하고 '혼다시'의 정보에 대해서 타상품도 포함하여 '어느 메이커의 표시가 읽기 쉽습니까', '가게에서 살 때 어디를 봅니까', '집에서 요리할 때 어디를 봅니까'라는 설문문을 조사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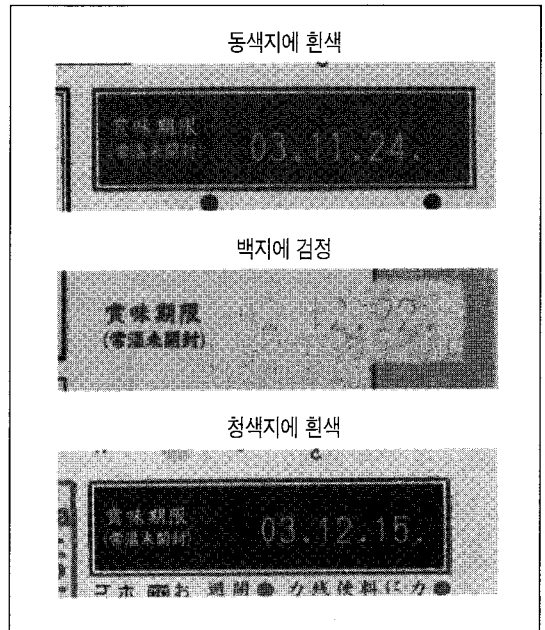
고객이 가게나 가정에서 가장 주목하는 표시 요소는 '유통기한', '상자 우측 가로', 원재료명'이었다.

이어서 가게에서는 핵심 문구, 사용 및 보존의

〔그림 4〕 ‘혼다시’ 뒷면표시(신·구)



〔그림 5〕 ‘혼다시’ 유통기한 인자



주의, 분량 기준, 가정에서는 조리방법, 문의처, 관련 정보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최하위는 포장재료의 표시였다.

이처럼 고객의 주목 사항을 해석하여 고객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표시 항목을 찾기 쉽게 배치하고 읽기 쉬운 글씨체가 되도록 개선하며 더욱

더 많은 고객의 모니터 평가를 실시해서 개선된 새로운 포장을 완성했다. [그림 4]에 신·구의 포장 뒷면을 비교해서 나타냈다.

유통 기한을 보기 쉽게 표시한 예로써 고객의 의견을 활용한 2가지 예를 소개한다.

종이 포장에 유통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써 레이저 마카는 기기의 보존성, 런닝 코스트, 인자의 확실성 면에서 뛰어나다.

‘혼다시’의 유통 기한 인자는 당초 다른 인자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자를 내에 레이저로 인쇄 해서 ‘백지에 검정’ 인자를 실시했지만 고객 상담 센터에 접수된 문의 중에 ‘유통기한 인자가 읽기 어렵다’라는 문의가 몇 건 들어오게 되었다. 상품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 확실히 인자가 연한 것이 많았다.



[그림 6] 마요네즈 뚜껑의 유통기한 인자



그래서 등색지의 인자 내에 레이저로 인자하여 '등색지에 흰색'으로 유통 기한을 표시해서 시험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유통기한 인자가 매우 선명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레이저 광 에너지에 의해 표면에 인쇄된 등지의 잉크를 승화 제거한 것으로 레이저 출력도 '백지에 검정'으로 하는 것보다 낮게 누를 수 있고 광원의 수명도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등색지를 수축색인 청색지로 대신하면 선명함이 더해진다. [그림 5]에 '혼다시' 유통기한을 '백지에 검정', '등색지에 백색', '청색지에 백색'의 인자로 표기한 예를 비교해서 나타냈다.

제2의 예는 마요네즈 병 뚜껑의 유통 기한 인자이다. 기존에는 유통 기한 인자가 오버랩에만 기재되어 있었다.

고객이 개봉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유통 기한이 불명확해지고 신선함이 중요한 마요네즈의 지표가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서 불편합니다'라는 고객의 의견이 많았다.

몇 번의 시행을 거쳐 뚜껑 윗면에 잉크젯으로

[그림 7] 냉동식품 봉투에 V로치를 시행한 예



날짜 인자를 표시하는 방식이 채용되었다(그림 6). 부착성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잉크와 뚜껑 재질의 조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뚜껑 윗면의 조면화 처리였다. 수송시의 마찰이나 식물유 등의 부착으로 박리·제거되는 일 없이 보존되는 범위의 미세한 요철 부여가 기술요건의 하나이다.

### 3-2. 단순하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시

우리 회사 제품의 대부분은 파우치 포장품이지만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의견에 '자르는 부분의 표시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열어야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파우치 포장에서는 최대한 노치와 '자르는 부분'의 표시를 넣고 노치 형은 단순한 I 노치형 보다는 U·V 노치를 권장한다는 방침으로 임하고 있다. [그림 7]에 냉동식품 봉투(지퍼 부착)의 자르는 부분 표시와 V 노치를 넣은 예를 나타냈다.

파우치에 충전 포장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지만 포장재를 롤 공급하고 봉투를

[그림 8] 냉동식품의 조리방법 아이콘



형성하여 충전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의 제약에 의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사방 파우치의 고속 제대 충전 포장기에서 U·V 노치를 첨부할 수 있는 것도 개발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 포장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기계에서도 I 노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자르는 부분' 표시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시 자체의 업계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표시의 '감각적인 이해'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뛰어난 표시라도 한 회사가 단독 채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감각적인 이해'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자사 개발의 기술이더라도 업계 전체로 넓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면 공업 소유권의 보유 및 행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림 8]에 냉동 식품 포장에 아이콘으로 조

리방법을 표시하도록 된 예를 제시했다.

전자렌지 가열, 기름으로 튀기고 증기로 찌고 프라이팬으로 볶는 등 많은 숫자를 써서 표시함으로써 직감적인 아이콘 표시를 이해하기 쉽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진행했는데 업계 통일의 방향으로 종합되어서 채용하게 되었다.

#### 4. 결론

이번에는 ① 법 대응 표시, ② 환경·재활용 대응 표시, ③ 표시의 일반적 디자인 등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설했는데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표시를 재검토하여 보다 유용한 표시를 목적으로 개선을 계속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